

그곳에 희망이 있다

또 하나의 작은학교 성남 수진동 푸른학교

글 · 양지연 yangji@kdemo.or.kr
사진 · 황석선 stonesok@kdemo.or.kr



은영이라는 아이. 초등학교 1학년 치고는 유난히 몸집이 조그맣고 특하면 눈물을 터트리던 아이가 있었다. 대학교 때 공부방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만난 아이다. 반쯤은 부서져 버린 집들과 곧 '철거 예정'이라는 빨간색 페인트 표시가 칠해진 좁은 골목을 돌아 올라가면 나지막한 지붕에 방 두 칸짜리 공부방이 있었다. 열 명 남짓한 아이들이 모여들었던 공부방에서 은영이는 제일 막내였고 언니와 오빠들 놀이에 끼지 못해 늘 내 주변만 맴돌았다. 말없이 옆에 다가와 덩석 껴안기도 하고 손을 꼭 잡고 놓아 주지 않을 때도 많았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아이는 어떻게 변했을까? 방과 후 공부방 '푸른학교'를 찾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10여 년 전 그 아이 은영이가 떠올랐다.



김인철 씨가 푸른학교만의 자랑이라며 주제수업과 심리운동을 설명해준다. 주제 수업은 환경, 평화, 인권, 통일, 노동, 역사 등 매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수업이다.

경기도 성남의 푸른학교는 큰 길가에 위치한 상가 건물 3층에 있다. 문을 두드리자 아이들이 한두 명씩 나오더니 “누구세요?” 라고 호기심 어린 얼굴로 쳐다보며 금세 시끌벅적해진다.

푸른학교만의 자랑

푸른학교는 역사가 꽤 깊다. 지난 IMF 직후인 1998년에 문을 열었으니 벌써 10년이 지났다. 처음에는 성남 지역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무료 급식과 학습지도를 위해 만들어졌다. 지금은 성남에만 9곳, 전국적으로 30곳이나 된다. 수진동 푸른학교 아이들은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모두 25명이다.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우선권이 있고 급식부터 시작해 이곳에서의 모든 활동 비용은 무료이다. 전체적인 교육 틀은 중앙 법인에서 결정이 되고 각 지부의 푸른학교에서 이것을 바탕으로 연간 계획과, 월간계획, 주간계획을 세워 운영한다. 푸른학교의 주간 시간표를 보니 이곳에서의 생활이 참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부터 들었다.

10여 년 전 공부방 자원 활동을 했을 때는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게 전부였다. 부모들이 일을 마치고 올 시간까지 숙제를 봐주고 놀이터에서 같이 놀고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었다. 그러나 푸른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은 정구 학과과정의 부족한 인성교육과 예능교육을 메우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알차게 꾸려져 있다. 일주일에 2회, 월요일에는 미술 전공 교사가 와서 미술을, 금요일에는 음악 전공 교사가 음악을 가르친다.

김인철 씨가 푸른학교만의 자랑이라며 주제수업과 심리운동을 설명해준다. 주제 수업은 환경, 평화, 인권, 통일, 노동, 역사 등 매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고학년 인권수업(직접 장해체험)
사진제공 푸른학교

수업이다. 지부별로 책임교사들이 주제를 하나씩 맡아서 교안을 올리면 교사연수시간에 토론을 거쳐 그것을 바탕으로 주제수업이 진행된다. ‘소중한 내 마음’이라는 인권 수업에서는 마음을 찍는 사진기가 등장 한다. 나의 행복, 슬픔을 찍는다면 어떤 모습일지, 지금의 내 마음은 어떤 모습일지를 그려보는 것이다. ‘인권’이라는 개념 설명 없이도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더불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심리운동은 다양한 놀이와 움직임을 통해 자신감과 긍정적인 생각을 키우는 놀이 수업이다. 심리운동을 진행하기 위해 푸른학교 교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심리운동 전문가 마주리 교수에게 심리운동 연수를 받는다고 한다.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기위해 배웠는데 하다 보니 선생님들이 더 재미있어 한단다. ‘끈끈이 사탕’, ‘당근 뽑기’, ‘흔들리는 버드나무’ 등 놀이 이름만큼이나 방식도 재미있다.

‘끈끈이 사탕’은 한 팀은 모두 녹은 사탕이 되어 서로 영켜 있고 다른 팀은 사탕들을 떼어 놓으려 하는 놀이인데 사탕들이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부둥켜안고 있는 동안 아이들 사이도 그렇게 돈독해진다고 한다. 놀이에서 교사의 역할은 최소화되고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협동심도 키우고 자신감도 키울 수 있다.

이렇듯 프로그램이 충실하고 좋아 일반 가정에서도 푸른학교를 찾는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한다. 10년이란 시간 동안 학습 프로그램도 알차졌고 아이들에 대한 지원과 교육도 전문화, 체계화 되었다. 학원이나 다른 어떤 기관들보다도 유익하고 따뜻한 공간인 듯하다.

공부방 교사로 산다는 건……

공부방 교사들에게 이 공간은 어떤 의미일까?

요즘 초등학교도 그렇지만 공부방에도 남자 교사는 흔치 않다. 푸른학교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를 조심스레 물었다. “성남에 있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다 성남시청에서 하는 위탁교육을 통해 푸른학교를 알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2회 정도 와서 영어 수업을 진행했는데 1년 정도 하다 보니 공부방 선생님이로부터 같이 일해 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어요. 살면서 보람 있는 일을 해보는 것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연한 계기로 공부방에 들어온 지 4년이 흘렀다.

“전 여기를 직장으로 생각하는데 친구들은 ‘너 아르바이트 언제 그만 두느냐’ 고 해요.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죠.” 김인철 씨가 계면쩍게 웃으며 얘기한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부모님과 의 상담이 더 힘들다고 한다. 입학상담을 하다보면 아이 상담이 아니라 학부모 상담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 아이에 대한 얘기는 10분 정도인데 부모들에 관한 얘기는 2시간 넘게 이어진다고 한다. 부모의 상황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상황을 알아야 아이의 모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게 상담을 하고 나면 그게 자신의 고민이 되어 며칠씩 끙끙거리게 된다고 한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울고 마음 나누는 이 공간이 그에게 얼마나 큰 삶터인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힘든 교사의 일에 올해는 또 하나의 무게가 더해졌다. 지역아동센터 법이 생기면서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대신, 교사들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요구한 것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으면 올 하반기부터는 공부방에서 근무를 못하게 된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쥐꼬리만한 몇 달치 월급을 모두 갖다 쏟아야 한다.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통에 공부방을 떠나는 교사도 많다. 좋은 교사를 영입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들의 처우개선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고 제한만 커져가 일을 하고 싶어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니 못내 아쉬울 뿐이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푸른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푸른학교 다니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라서 못 오는 친구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얼굴에 조금이라도 웃음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의 소박한 바람이 어떠한 상황에서 서도 이뤄지길 바라마지 않는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꿔본다. 어른들이 만든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고 자랄 수 있는 세상! 허황된 꿈이지만 푸른학교를 만나고 나니 그저 꾸는 꿈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용기를 갖게 된다.



푸른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은 정규 학과과정의 부족한 인성 교육과 예능교육을 메우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알차게 꾸려져 있다.